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67호  
2016. 7. 04

## 정책동향

- 브렉시트의 국내외 경제 파급 효과
- 브렉시트의 국내 건설산업 파급 효과

## 시장동향

- 2016년 국내 건설 수주 18.3% 감소, 129조원 전망
- 2016년 주택 매매가, 수도권 상승·지방 하락 전망

## 산업정보

- 6월 CBI, 전월 대비 0.9p 하락한 77.6 기록

## 건설논단

- 미국 건설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브렉시트의 국내외 경제 파급 효과

- 금융위기 때보다 충격 제한적이나, 세계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증대 -

### ■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 국내 경제 성장률도 소폭 둔화

- 주요 전망 기관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이 0.5~0.9%p 하락하고, EU의 2016년 경제성장률도 0.3~0.7%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sup>1)</sup>
- 유럽 이외 국가들은 유럽과의 교역량 감소,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16년 경제 성장률이 소폭(0.2%p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브렉시트가 유럽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2008년 8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 결국 브렉시트로 인해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0.2~0.3%p 감소해 3%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문제임.
  - 주요 전망 기관에 따르면 2017년 세계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보다 0.3~0.7%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브렉시트의 여파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음.
- 주요 기관들의 국내 경제 성장률 기존 전망치는 대부분 2%대 중반인데, 수정 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기관들은 연간 전망치를 약 0.2%p 내외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전망치에서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가 낮았는데, 하반기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지면, 성장 모멘텀이 상당 폭 약화될 전망이다.
-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 및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투자심리 위축 등은 당분간 국내 건설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구체적으로 주택 구매력 위축, 민간부문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투자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해외 건설시장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1) 'Brexite 국민투표 결과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2016. 6. 24.

## ■ 기준금리의 역대 최저 수준 유지와 추경 편성

- 브렉시트로 인한 국내 기준금리의 역대 최저 수준 유지(또는 인하), 추경예산 편성 등은 국내 건설산업에 긍정적 요인임.
  -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미국 금리 인상이 브렉시트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의 연내 인상 요인이 사라짐.
  - 역대 최저 기준금리의 유지는 주택 수요, 민간부문 비주거 건축 수주 등에 긍정적 영향 예상
-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발표 이전에 논의되던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방안이 브렉시트 발표 이후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 대책으로 발표됨.
  - 추경예산을 포함한 경기 보강 대책은 공공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 저유가 지속 및 원화 가치 소폭 하락

- 브렉시트 발표 직후 국제 유가는 5% 가까이 급락했으나, 최근 브렉시트의 실물경제 영향력이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인식되면서 유가 하락세는 진정됨.
  - 올 들어 국제 유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브렉시트 여파로 향후 국제 유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저유가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직후인 지난달 24일 29.7원이 올라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하였고, 27일에는 전일 종가 대비 2.4원이 오른 1182.3원에 거래를 마감함.
  - 지난달 28일 이후 환율이 다시 감소세를 보이며 점차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원화 가치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로 인한 저유가 지속, 원화 가치 소폭 하락 등은 국내 건설산업에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전망이다.
  - 유가 하락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건설기업의 수익성이 소폭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있으나,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중동 건설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원화 가치 하락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을 소폭 상승시키는 효과 일부 발생

경영금융연구실

## 브렉시트의 국내 건설산업 파급 효과

- 국내외 건설시장 일부 위축, 기업의 금융 조달 비용 증가 -

### ■ 국내 건설시장 : 민간 수주 감소 폭 확대, 경기 보강 대책으로 토목 기성은 증가

- 브렉시트로 인한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라는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와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정적 요인이 민간 건설시장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2008년 8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6개월 동안 총 3.25%p의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2% 수준으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수주가 1년 동안 감소세를 보임.
    - \* 2008년 8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민간 수주 하락세 : 2008년 하반기 17.6% 감소, 2009년 상반기 49.6% 감소
  - 구체적으로는 주택 수요 위축에 따라 하반기 이후 주택 건설 수주의 하락세 확대가 예상되고,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 영향으로 2015~16년 상반기 동안 역대 최고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는 민간 비주거 건축 수주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설비투자와의 연계성이 높은 민간 토목 수주도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하반기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브렉시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민간 수주의 감소 폭과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보임.
- 공공 건설시장은 경기 보강 대책으로 토목 기성을 중심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수정 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 SOC 예산이 약 5조원 증가함에 따라 2009년 공공 수주가 전년 대비 39.8%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음.
  - 이번 경기 보강 대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계속사업에 대한 기성 집행 확대 위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신규 수주보다는 토목 기성을 확대시키는 효과 예상
  - 결국, 경기 보강 대책이 하반기 토목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4%대 중반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금년 건설투자 증가율 기존 전망치는 4.4%)됨.

## ■ 해외 건설시장 : 해외건설 수주 침체 2017년까지 지속 우려, 투자개발형 사업 위축

-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해외 건설시장은 브렉시트 여파로 당분간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 국제 유가가 당분간 저유가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중동 수주와 석유 및 화학 플랜트 수주의 침체가 지속될 전망
  - 아울러 신흥국 건설시장도 위축 가능성이 있음. 아시아보다 브렉시트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중남미 지역의 수주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이미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었던 중동 지역 수주의 침체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저유가가 해외건설 수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브렉시트로 2017년 세계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는 2017년에도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운 가능성이 높아짐.
-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금융 조달 어려움 증대에 따라 발주 이전 단계에 있던 프로젝트들의 발주 연기 혹은 규모 축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투자개발형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 외에도 발주처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공사비 지급 지연 가능성 증대, 금융 조달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됨.

## ■ 건설기업 파급 효과 : 국내외 건설시장 일부 위축 및 자금 조달 비용 소폭 상승

- 건설기업은 국내외 건설시장 위축에 따른 악영향 이외에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됨.
  - 브렉시트 여파로 주택을 비롯한 민간 건설시장의 위축이 좀 더 빨라져 건설기업의 신용도는 일정 부분 하락할 전망이며,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기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 증가 전망
  - 결국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하반기에 예정된 회사채 발행이나 차환 발행도 어려움이 증가할 전망
- 또한,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금융도 당분간 어려움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됨.

경영금융연구실

## 2016년 국내 건설 수주 18.3% 감소, 129조원 전망

- 건설투자 전년 대비 4.4% 증가 전망, 건설기업은 경기 흐름 주시해야 -

### ■ 민간과 공공 수주, 작년 대비 각각 21%, 11.6% 감소할 듯

- 2016년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8.3% 감소한 129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4년 이후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인 국내 건설 수주가 3년 만에 다시 감소하는 것임.
  - 다만, 수주액 자체는 129조원을 기록해 비교적 양호할 전망(201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준)
  - 하반기에 수주의 감소 폭이 확대되어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 민간 수주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89.5조원을 기록해 2016년 국내 건설 수주 감소세를 주도할 전망이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감소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 공공 수주는 토목 수주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6% 감소한 39.5조원을 기록할 전망인데,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 수주가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2016년 하반기 국내 건설 수주 전망

구분	2013	2014			2015			2016(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 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36.2	21.7	19.0	40.7	23.4	21.3	44.7	19.3	20.2	39.5
민간	55.1	28.0	38.8	66.7	50.5	62.8	113.3	49.7	39.8	89.5
토목	29.9	18.0	14.7	32.7	22.0	23.5	45.5	18.1	19.4	37.5
건축	61.4	31.6	43.1	74.7	51.9	60.6	112.5	50.9	40.6	91.5
주거	29.3	16.2	24.9	41.1	30.7	37.0	67.7	29.6	21.4	51.0
비주거	32.1	15.4	18.2	33.7	21.2	23.6	44.8	21.4	19.1	40.5
계	91.3	49.7	57.8	107.5	73.9	84.1	158.0	69.0	60.0	129.0
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공공	6.1	44.4	-10.0	12.6	8.1	11.8	9.8	-17.5	-5.1	-11.6
민간	-18.2	15.9	25.1	21.0	80.5	61.9	69.7	-1.5	-36.6	-21.0
토목	-16.2	27.4	-6.6	9.4	22.1	59.6	39.0	-17.8	-17.3	-17.5
건축	-6.7	26.5	18.4	21.7	64.1	40.6	50.5	-1.9	-33.1	-18.7
주거	-14.6	49.6	34.8	40.3	89.5	48.7	64.7	-3.6	-42.1	-24.7
비주거	1.9	8.9	1.5	4.8	37.5	29.5	33.2	0.6	-18.8	-9.6
계	-10.0	26.8	10.8	17.7	48.8	45.4	47.0	-6.6	-28.6	-18.3

주 : 2016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 건설투자 전년 대비 4.4% 증가, 하반기에는 증가율 둔화 전망

- 건설 투자는 2016년에 전년 대비 4.4% 증가하고, 투자 금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기존 역대 최고치인 2009년 대비 3.4% 증가 전망).
  - 공종별로는 주택 및 비주거 건축 투자 금액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주택 투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 건설투자 호조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 반면, 토목 투자는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해 7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결국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2016년 하반기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 투자	91.55	104.78	196.33	93.42	105.04	198.46	94.29	111.94	206.23	100.99	114.37	215.36
증감률	5.6	5.4	5.5	2.0	0.3	1.1	0.9	6.6	3.9	7.1	2.2	4.4

주 : 2016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이며, 건설 투자액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 ■ 전망의 시사점

- 건설경기 동행 지표(건설 투자) 기준 2016년 건설경기는 호황기를 지날 전망이지만, 하반기 이후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급락하기 시작해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주택 수주의 하락세가 향후 2~3년 간 이어질 전망이고, 공공 수주가 이를 보완하기 어려워 향후 2~3년 간 국내 건설 수주의 하락세가 예상됨.
  - 동행 지표인 건설 투자, 기업의 국내 공사 매출, 자재 출하 등은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기업은 하반기 이후 건설 수주의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아울러 2017년 하반기 이후 증가할 미입주 리스크 대비도 필요함.
  - 2018년 이후 국내 공사 매출 절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수주 잔고 확보도 중요. 단, 국내 시장이 축소되고 해외 시장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에서 선별적 수주 전략이 필요함.
  - 2020년을 전후해 국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비한 사업 및 경영 체질 개선도 중요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올 하반기 주택 매매가, 수도권 상승·지방 하락 전망

- 공급 증가와 유동성 제약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 폭 둔화 -

### ■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의 주요 변수와 영향

- 높은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 지속적인 저금리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나, 하반기 구조조정 및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한 하방 요인이 큼.
  - 수요 : 높은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 유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하반기에 예정된 구조조정으로 소득 여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실수요는 주춤할 것으로 판단됨. 저금리 영향으로 분양권 거래 시장과 강남발 재건축 시장이 호조세이나, 수도권 전역으로 호조세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공급 : 물량 증가에도 상반기 동안 판매 지표가 비교적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공급 시기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임. 이는 단기적 공급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장기적 시장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됨.
  - 금융 : 가계 신용, 중도금 대출, PF 대출의 빠른 증가로 리스크가 확대됨.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 기조가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 수도권 매매가 0.3% 상승·지방 1.0% 하락, 전국 전세가격은 0.4% 오를 듯

- 2016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량 증가와 유동성 제약 우려 등으로 매매 가격은 0.3% 수준의 상승이 예상됨.
  - 4/4분기 강남발 전세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수도권의 준공 물량이 다수 존재하여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비아파트 부문의 증가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완충할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량 증가와 유동성 제약 우려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되어 0.3% 내외의 상승이 예상됨. 서울을 중심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주택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고려할 때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거래량 감소 폭은 30%에 육박할 것임.
  - 지방은 장기 상승에 따른 경기 사이클 변동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3년 연속 25만호에 육박하는 입주가 이루어진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임.



- 상반기 동안 호조를 보였던 분양 시장도 금융 규제 강화 움직임의 속도 및 강도에 따라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도 존재함.

<표 1> 2016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기 말 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sup>a)</sup>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매매	수도권	-1.4	1.3	0.7	1.3	1.4	1.0	4.4	0.6	0.3
	지방	3.1	2.2	0.7	1.1	1.0	0.8	3.7	0.1	-1.0
전세(전국)		5.7	3.8	1.2	1.6	1.5	0.9	4.4	0.3	0.4

주 :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의 주택종합가격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은 5개 광역시와 기타지방 변동률을 재고주택 수(2014년 주택보급률의 주택 수 기준)를 가중하여 산출함. 2016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 ■ 2016년 분양 물량 45만호, 주택 인허가 실적 65만호 전망

- 2016년 주택 공급량은 상반기 공급 추이 및 경기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분양(승인) 기준으로 45만호, 주택 인·허가 실적 기준으로 65만호가 전망됨.
  -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가 예상되나, 분양 물량의 규모는 2009~10년 수준의 2배를 넘어섬.
  - 상반기 동안 인허가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하반기는 경기가 둔화되는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절대적인 물량은 1990년 이후 5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착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준공 물량의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표 2> 2016년 주택 공급 전망

(단위 : 호)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분양(승인)	201,098	200,958	284,923	297,964	298,851	344,887	525,467	450,000
주택 인허가	381,787	386,542	549,594	586,884	440,116	515,251	765,328	650,000
공공	168,300	138,315	115,349	109,609	79,619	63,320	76,428	80,000
민간	213,487	248,227	434,245	477,275	360,497	451,931	688,900	570,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6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 공급 급증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국 브렉시트 충격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조정기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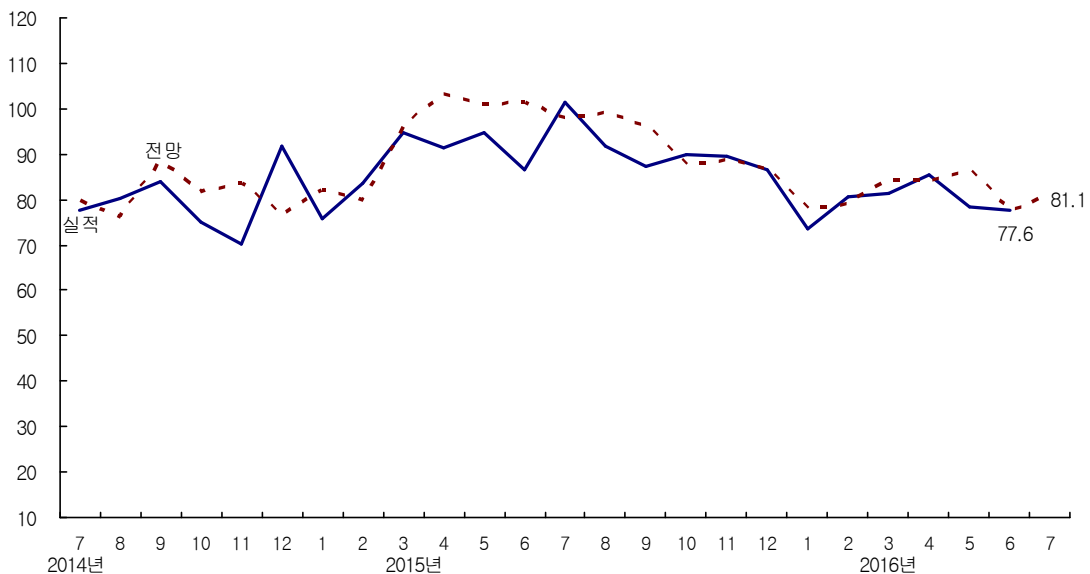
## 6월 CBSI, 전월 대비 0.9p 하락한 77.6 기록

- 2개월 연속 하락, 대형 기업이 하락세 주도 -

### ■ 6월 CBSI, 지난 1월 이후 5개월래 최저치 기록

- 2016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9p 하락한 77.6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5월에 전월 대비 큰 폭(7.1p)으로 하락해 4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는데, 6월 들어서도 소폭 하락함.
  - CBSI는 지난 2개월 동안 총 8.0p 하락했으며, 그 결과 6월 CBSI는 지난 1월(73.5) 이후 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함.
  - 지난 5월의 CBSI 하락은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는데(5월 대형 기업의 신규 주택공사 수주 지수 25.0p 하락), 6월에도 역시 대형 기업 지수가 전체 CBSI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6월에는 주택공사 수주 지수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비주거용 건축공사 수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 또한 전체 CBSI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대형 및 중소 기업 지수 하락, 중견 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

- 기업 규모별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 기업의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하였지만, 대형과 중소 기업 지수가 하락함. 특히, 전월인 5월 CBSI 하락을 주도했던 대형 기업 지수가 6월에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CBSI 하락을 주도함.
  - 대형 기업 지수는 지난 5월 16.7p나 하락하였는데, 6월에도 6.4p 하락함. 결국, 지난 2014년 4월(71.4) 이후 2년 2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인 76.9를 기록함.
  - 주택의 신규 공사 수주 지수가 6.4p 소폭 하락한 가운데, 무엇보다 비주거용 건축의 신규 공사 수주 지수가 37.9p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대형 기업의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됨.
  - 중견 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5.6p 상승한 90.9를 기록함. 중견 기업의 주택 신규 공사 수주 지수가 103.0으로 기준선 100을 상회했는데, 이것이 지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한편, 중소 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1.9p 하락한 63.3을 기록함.

<표 1>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91.6	87.2	89.9	89.5	86.7	73.5	80.8	81.4	85.6	78.5	77.6	77.7	81.1
규모별	대형	107.7	100.0	100.0	92.3	100.0	92.3	92.3	100.0	100.0	83.3	76.9	75.0	84.6
	중견	91.9	93.9	102.8	102.9	93.8	76.5	88.9	83.3	83.8	85.3	90.9	88.2	93.9
	중소	72.5	64.6	63.3	71.1	63.0	47.9	58.0	57.4	70.8	65.2	63.3	68.9	62.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7월 전망치... 81.1, 6월 실적치보다 3.5p 높아

- 2016년 7월 CBSI 전망치는 6월 실적치 대비 3.5p 높은 81.1을 기록함.
  - 통상 7월에는 하절기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지난 5월과 6월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로 인하여 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비록 지수가 6월에 비해서는 상승해도 상승 폭이 3~4p에 불과하고 지수 자체도 80선 초반대여서 7월에도 부진한 경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미국 건설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미국 건설산업은 국내와 같이 산업 차원의 혁신 정책 혹은 전략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공 조달 방식 등 정책과 제도의 혁신보다 공기, 공사비 등 생산성 향상, 첨단 기술 및 자재의 적용 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업의 새로운 전략과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1) 고객(발주자, 사용자) 친화적 접근, 2) 사업 수익 창출의 핵심 도구로 정보화 기술의 적극적 활용, 3) 직접 시공의 확대, 4) 새로운 리스크관리 개념의 도입, 5) 소프트 측면에서 콘텐츠가 있는 건설 서비스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공공 건설사업의 변화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였다. 현재 미국 공공 건설투자 및 사업 부문은 정부 재정의 부족,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변화,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등으로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국가의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건설, 에너지 효율 극대화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양적인 수요는 줄고, 질적인 수요는 확대되는 형상이다.

세 번째로, 생산 방식의 변화, 즉 현장 제작에서 공장 제작 방식으로 건설 생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산업의 DNA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

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조만간 세계 건설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디지털 설계와 모듈 공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신규 및 은퇴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신규로 산업에 진입해야 할 인력(18~34세)이 건설산업을 회피하거나 취직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향후 19년 동안 매일 1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과 기능의 단절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짐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차원에서 인력의 양적·질적 구조 혁신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건설산업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서 건설 공급자 그룹이 주도하는 산업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일자리 창출, 전혀 새로운 사업 및 기술의 추진과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건설기업이 앞장 서는 모습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의 수요에만 움직이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진일보된 기술과 콘텐츠로 시장과 사업을 만들어가는 산업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건설경제, 2016. 6. 9>